

미래를 여는 열쇠, 질문의 힘

충남교육청 질문나라마당 개최
‘정답보다 질문’ 영재교육 본질
자기주도적 성장 이끄는 원동력

충남교육청은 6일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 ‘함께 성장하는 질문 여행’의 핵심 프로그램인 ‘질문 나라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5월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질문 발자국 올리기’ 활동에서 우수 질문자로 선정된 영재학생 4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확장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성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센터장은 “질문,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질문이 미



질문 나라마당에서 영재교육 학생이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래를 여는 열쇠이자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끄는 힘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전했다. 소통 시간에는 김지철 교육감이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성장과 꿈에 대한 메시지, 미래 사회 변화와 진로 준비 방향, 교육감의 어린 시절 꿈, 자기주도성 키우기 등을 들려주며 진솔한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나라 발표’는 9개 관심 분야 모둠에서 서로의 질문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고 질문이 어떻게 확장되고 새로운 시각을 만드는지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에 참여 소감도 나눴다.

충남과학고 멘토링에서는 학교의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R&E) 동아리 활동, 교육과정, 학교생활 등을 살펴보고 선배들의 진로 조언과 학업 전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질문하는 힘은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정답보다 질문을 중시하는 영재교육의 본질을 잘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한남대·KAIST, 30일 2025 AI 드로잉 콘테스트

한남대학교와 KAIST가 공동으로 오는 30일 ‘2025 AI Drawing Contest’를 개최한다.

한남대 56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인 예술 표현의 가능성을 넓히

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에 맞춰 작품을 제작하며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대회 당일에는 KAIST 교수의 특별강연도 진행돼 K-Culture와 예술 창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

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AI Drawing Contest 홈페이지(ai.duf.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변상형 한남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학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대전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대전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공기업(1등)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5일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군에서는 도시공사가 유일하게 ‘가’ 등급에 선정, 최우수 지방공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개발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해 재무건전성과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 산업단지 개발, 청년주택·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인사체계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 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영 사장은 “경영평가 전국 1위의 성과는 공사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며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달성했다. 더욱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충남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경영성과(주요사업, 정책성과)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특히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사업’을 통해 도·교육청·지자체 간 아동돌봄 연계체계를 고도화

하고 아침·야간·주말 및 학교연계 틈새돌봄 운영, 돌봄지원사 파견, 온라인 플랫폼 개설 등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 주도의 돌봄 실천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자생적 지역 돌봄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옥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보급하는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대전교통공사 디지털 혁신유공 최우수 선정

대전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평가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 유공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6월 교통공사에 따르면 평가는 관리 체계, 공공데이터 품질 3개 분야 11개 세부 지표를 점검하는 제도다. 올해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통공사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관

리 체계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특히 행안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협력해 공유자전거 ‘타슈’ 재배치 분석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차고지 개선 추진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실효성있게 사용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대전대신고 공공데이터 창업대회 도시공사사장상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2025 대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서비스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전대신고등학교 팀에 도시공사사장상을 수여했다. 수상팀은 김태환, 송리안, 김선민, 백승우, 권민준 군으로 이들은 ‘인공지능(AI) 기반 토지 분석 및 기상 연동 스마트 농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국영 사장은 “공공데이터가 실생활에 적용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아이템이었다.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는 공



최근 2025 대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서비스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전고등학교 팀이 도시공사사장상을 받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jis@ggilbo.com

창작 뮤지컬 ‘꿈씨 패밀리 별빛 수호대’



대전문화재단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뮤지컬 ‘꿈씨 패밀리: 별빛 수호대’를 8일부터 10일까지 옛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하루 2회(오후 3시, 7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 꿈순이, 도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아이들의 소원이 담긴 별빛을 지키기 위해 관객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꿈씨 패밀리의 친근한 세계관에 창작 악당 캐릭터를 더해 극적 긴장감과 감동을 높였으며 관객 참여형 연출을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의 일부로 함께 호흡하도록 구성됐다. 또 공연 전·후 30분간 운영되는 ‘별빛 포토존’에서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주빈 기자

8~10일 옛충남도청사 대강당

충남관광캐릭터 ‘위디가디’ 홍보 애니 뮤비 제작

음원 ‘위디가디왔송’
AI기술 접목 5개 국어 버전

그리고 있는 ‘위디가디왔송’ 음원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직원이 작사했고 작곡과 보컬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 외국인도 즐길 수 있도록 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 버전으로 만들었다.

‘위디가디왔송’은 충남도, 충남문화

관광재단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외 관광 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위디가디 뮤직비디오는 AI 기술을 홍보에 도입한 참신한 시도”라며 “아직 AI기술이 완벽하진 않지만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올해도 원도심 보물찾기
0시축제기간 오후 3~8시

대전시사회혁신센터가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대전0시축제와 연계해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원도심 보물찾기 8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꿈씨 시계 및 예코백 만들기, 수제 탁주 빚기, 청꿀에이드와 꿈돌이 아이스크림 크로플 만들기, 꿈씨 키팅 만들기, 호롱불 만들기, 대형 터프팅 체험, 부채 및 손수건 그림그리기, 대전 지역 작가와 함께 나만의 대전 이야기를 만드는 문학 활동 등이다.

각 프로그램은 0시축제 기간 오후 3~8시 진행된다. 온라인(zrr.kr/58W-JoW)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전체 모집 인원의 20%는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